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ental Belief Types of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천희영*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옥경희**

Dept. of Child Welfare, Kosin Univ.

Professor : Chun, Hui-Young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

Professor : Ok, Kyunghye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arental belief types of mothers who had defected from North Korea and found out its relationship to the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and the child's age. 89 mothers who had defected from North Korea with the youngest child being under 20 years ol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cluster analysis, MANOVA, and X^2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al beliefs were clustered into 3 types: 'high child- and parent-centered & low cultural transformation'(cluster 1)(37.08%), 'low child- and parent-centered & middle cultural transformation'(cluster 2)(46.03%), and 'high child- and parent-centered & high cultural transformation'(cluster 3)(16.85%). The differences among the clusters were found in the warmth-acceptance and rejection-restriction dimensions of the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The frequencies of each cluster were meaningfu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mother's age, educational level, length of residence in South Korea, and their child's 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1)(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부모신념(parental beliefs), 양육행동(child-rearing behaviors)

* 주 저 자 : 천희영 (E-mail : chunhy@kosin.ac.kr)

* 교신저자 : 옥경희 (E-mail : yundoh@gwangju.ac.kr)

1) 본 연구의 주요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법적 정의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이들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남한에 정착한 주민으로 제한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의미하기로 한다.

I. 서론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4월 현재 2만 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1).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2006년 이후 매년 75%를 상회하고, 19세 이하 아동의 누적 비율이 16%에 이른다는 것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Chae, 2003; Kim, 2011; Song, 2002).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가족은 남한사회에의 적응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가족 단위로 탈북한 경우에 남한 생활에의 적응이 쉽고 빠르며(Lee et al., 2001; Song, 2002), 부모나 자녀의 적응에 있어 가족의 지지와 부모와의 유대가 심리적응의 중요 맥락(Kim, 2008)이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서 직업과 교육의 역할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모아져 왔으나 점차 가족이나 부모의 역할로까지 주제가 넓어지고 있다(Kim, 2011).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관한 연구는 가족문화 특성(Ahn, 2002), 가정생활(Kim, 2011; Song, 2002), 남한사회 적응과 가족 관련 요인의 관계(Kim, 2006; Kim, 2008) 등을 주제로 가족의 특성이나 일반적 가족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행해졌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가정의 문화나 생활 특성의 분석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다루어지거나(Ahn, 2002; Lee et al., 1997), 주로 자녀의 남한사회적응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해서 이루어졌다(Chin & Yi, 2007; Kim, 2008; Kim, 2011). 부모역할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양육행동을 소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형편이다(Hong, 2003; Kim, 2007; Park,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이주는 국제적 이민, 난민 이주,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이주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원 사회(origin society)와의 단절감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심리적 문화적응의 과정이 요구된다(Chae, 2003). 남한과 북한의 문화는 아직은 서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경우처럼 문화적 이질성이 많지 않고 강한 민족의식, 집단주의적·유교적 사회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적 동질성이 발견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북한 문화가 상당히 다르게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Chae & Yhi, 2004). 남북한의 분단 이후 사회 운영체계의 차이에 의해 인지양식 측면에서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정서 구조적 측면에서는 조건성 대 절대성, 행동 성향면에서는 시장지향성 대 이념지향성과 같이 남한과 북한이 이질적인 심리 양상을 보인다는 Lee(2000)의 지적은 그 예가 된다. 또한 문화심리학자인 Kitayama et al.(1997)은 개인의 심리와 성격이 그 개인이 속한 문화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어진 문화체계의 구성요소로서 문화와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화와 개인의 심리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이 남한주민 부모의 그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가 부모의 역할수행(parenting) 관련 신념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발달과학에 대한 생태학적·맥락적 관점(Bornstein & Cheah, 2006)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는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관계나 자녀발달에 관한 간접적 정보도 얻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부모역할수행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뿐 아니라 자녀와 양육에 대한 신념 또는 인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 연구들이 부모와 자녀간의 행동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였던 경향에서 벗어나 1980년대부터는 부모역할수행에서 외적 행동 이면의 정서구조 즉 부모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Chun, 1998). 특히 부모인지의 핵심인 부모신념(parental belief)은 부모가 속해 있는 문화적·사회적 맥락과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신념이나 가치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것으로 아동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Kim, 2006; Miller, 1988). 그리하여 부모신념은 문화와 양육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Harkness & Surper, 2006), 국내에서도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서구 문화와 한국 문화의 부모신념을 비교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Chun, 1998, 2003; Han, Hokoda, & Song, 2009; Kim, 1995; Kim, 2006; Lee, 2005).

부모신념은 아동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그 내용 또는 하위요인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다루어졌다. 부모신념을 다룬 비교적 초기의 연구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의 근원이나 특정 능력의 발달시기에 대한 신념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Miller, 1988), 이후 아동발달에 관한 귀인과 부모의 정서과정 및 사회화 책략(Chun, 2003; Hasting & Rubin, 1999; Kim, Ok, & Chun, 2003; Miller, 1988), 자녀양육의 목적이나 교육관(예; Cho et al., 2008; Goodnow, 1988; Han, Hokoda, & Lee, 2005; Kim, 1994; Seo & Moon, 2008; Song, 2009)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었다. 부모의 자녀양육관 역시 전통적인 부모신념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어왔는데(Kim, Ok, & Chun, 2003), 국내의 부모신념 연구는 주로 자녀양육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Choi, 2011; Oh & Jung, 2006).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의 신념은 아동중심적 양육관과 부모(또는 성인)중심적 양육관으로 대별된다(Choi, 2011; Jung, 2008; Oh & Jung, 2006). 전자는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이 있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므로 양육의 자유와 솔선성을 중요하게 보지만, 후자는 아동이 학습과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이므로 부모는 양육의 행동을 통제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자신이 사회화된 북한사회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부모신념에 관심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기존의 고유한 문화도 전달하고 새로운 문화에도 적응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대상에 대한 부모신념을 연구한 Sheinberg(2003)는 라틴계 미국 어머니들의 부모신념을 연구함에 있어서 미국사회에서 자녀를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집합주의적이고 가족주의가 강한 소수민족 문화가 침식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모신념의 하위요인에 아동중심 신념과 부모중심 신념 외에 문화전달 신념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신념을 살펴보는 데 있어 아동중심과 부모중심 부모신념뿐 아니라 문화전달 부모신념 하위차원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모신념의 특성을 부모신념의 하위차원별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하위차원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신념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모신념이 아동의 양육과 발달적응에서 갖는 중요성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책략과 그 결과를 결정하는 도구라는데 있다(Grusec, Rudy, & Martini, 1997). 부모신념은 부모신념과 아동행동의 결과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양육행동의 근간으로 작용하며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결정하여 자녀의 사회적응력 성취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다는데 대체로 이의가 없다(Chun, 1998; Goodnow, 1988; Kim, 1993; McGillicuddy-DeLisi, 1992; Miller, 1988). McGillicuddy-DeLisi(1980)는 신념을 행동에 대한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구조보다 부모신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양육신념에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은 이들의 부모역할수행과 자녀의 발달적응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에 따라 부모의 신념 그리고 그에 따른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북한사회의 문화집단에 속해 있던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부모신념 및 부모신념과 관련된 양육행동의 특성은 어떠한가? 관련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 및 이해가 가능하였다. 첫째는 북한의 사회체제 특이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사회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문화 간의 주요 차이를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부모의 신념에도 반영

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 특성이 강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문화에서는 부모의 통제나 강요 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과 동조가 강조되며, 이는 자녀를 사회화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으로 해석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Triandis, 1995; Trommsdorff, 2006). Grusec et al.(1997)은 집단주의적 아시아 문화에서 권위주의적 양육실체는 부모의 권력 유지보다는 '아동의 유익을 위한' 권위주의로서 아동 또는 가족의 조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중국·일본의 부모, 중국계 미국인 어머니,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와 같은 동아시아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Chao, 1994; Kim, 1995; Shin, 1996)과 한국 청소년 대상의 연구(Rhoner & Pettengell, 1985)에서 부모의 통제는 아동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가족 내 결속을 강조하고 자녀에 대한 보호와 애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서구와 아시아에서 문화의 차이에 따라 부모통제 개념은 상이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 and Park(1997) 역시 한국의 어머니들은 가족중심주의적 집단주의를 중시하여 집단의 일원인 자녀의 의무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권 부모들이 가족중심적 집단주의에 따른 부모신념과 양육 특성을 보인다면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도 이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부모신념 및 양육행동 특성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들을 통해서였다. Kim(2011)은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수차례 진행한 가정혁명화를 통해 가정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북한당국은 해방 후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제1차 가정혁명화 시기부터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함으로써 가정의 전통적인 도덕과 원리를 배척하였다. 또한 1970년대까지의 세 차례의 추가 가정혁명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정의 기능을 제거하고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정이 노동자 합숙소로 전락하게 하였다. 가족의 기본적인 사회화 기능이 국가로 이전되면서 부부관계가 동지적 관계로 변화되었고 부모 자녀간의 관계도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된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평등하면서 상호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인위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족 소멸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의식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게 하는 등의 급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5차 가정혁명화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로의 복귀로 특징지어

졌다. 1980년 중반 이후, 특히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1996년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가족 의식이 확고해지면서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아내의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고 자녀양육의 책임도 국가에서 가족에게로 전이되었다.

관련하여 Kim(2006)은 1990년대 전반까지 출판된 북한의 자료들에 근거하여 가정생활 영역에서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적 문화도덕 생활규범이 강조되고 부모의 권위가 소멸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1990년대 말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은 그와 차이가 있었다. 북한 아동의 사회화에서 집단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념이 강조됨으로써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도록(Lee et al., 1991),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방식에 전적으로 따르도록(Ahn, 2002)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두드러지며(Ahn, 2002), 이는 자녀와의 갈등 원인이 된다고 알려졌다(Kim, 2011).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과거 가족 소멸화 정책에 의한 부모권위의 상실 경험과 자녀교육의 부재 습관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필요한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1).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접하거나 문헌조사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관련 신념과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한편 부모신념에서의 개인차는 사회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정(Mills & Rubin, 1990)에 근거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신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Chun, 1998; Kim, 2006). 부모신념을 다룬 연구 대부분이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부모의 연령분포 범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연령 변인은 소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중심적 교육관을 가지며(Kim, 1991; Park, 1996), 자녀의 지적 특성에서 인지적 기능과 함께 비인지적 기능도 중요하게 인식한다(Kim, 1994)는 연구와 부모의 연령에 따른 자녀교육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Jung, 2008) 등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중심적 교육관을 갖는 경향이 있고(Lee, 1983) 자녀를 부모와 같이 사고하는 능동적 지식구성자로 보며(Miller, 1988),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외부의 권위에 대한 순종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1994).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지기능을 중요하게 평가하거나(Okagaki & Sternberg, 1993 cited in Kim, 1994), 아동이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지식을 구성한다는 신념(McGillicuddy-DeLisi, 1980) 또는 발달에 적합한 신념(Johnson & Martin, 1983 cited in Seo & Moon, 2008), 아동중심적 자녀교육관(Jung, 2008; Lee, 1983), 낮은 문화전달 신념(Kim, 2006)을 갖는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부모신념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도 소수 발견되었다(Jeon, 1992; cited in Seo & Moon, 2008; Kim, 2000).

나이가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그들이 성장하고 사회화된 북한사회의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양육신념을 갖고 있지만, 남한사회에서의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사회의 문화에 자신과 자녀가 함께 적응해 나가야 함을 안다. Chae and Yhi(2004), Kim(2011)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 문화적 이질감을 많이 느끼지만 사회적응에의 의욕 또한 높은 편이며, 입국 후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사회 문화에 따른 갈등을 겪으며, 4년 정도 지나야 남한사회의 생활에 익숙해지며 남한사회의 가치와 제도 등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지만 부모로서의 역할과 양육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알려진다(Kim, 2011).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부모신념은 비교적 안정된 속성을 갖지만 인적·사회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수정됨으로써 구조화된 신념체계를 다시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Seo & Moon, 2008) 부모신념 특성은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주목되었다.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 변인의 하나인 아동의 특성은 아동의 기질, 성, 출생순위, 연령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할 수 있다(Ahn & Park, 2002; Chun, 1998). 이 중에서 아동의 연령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태도를 달리하게 한다(McGillicuddy-DeLisi, 1992). 만4세 어머니에 비해 만5세의 어머니의 DAP 신념이 더 높다는 Seo and Moon(2008)의 연구결과 및 Entwisle and Hayduk(1981 cited in Oh & Jung, 2006)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반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문화교육에 대한 신념(Hwang, 2006)이나 개인적·사회적 양육신념(Oh & Jung, 2006)이 변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을 유형화하여 부모신념의 특성을 살펴보고, 부모신념의 유형에 따라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신념의 유형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직접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부모역할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통한 그들 자녀의 적응적 발달을 돕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에 따라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가?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46.1%)와 30대(41.6%)가 다수를 차지하며 50대(10.1%)와 20대(2.2%)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학력은 북한에서 인정된 최종 학력으로서 고등학교 4~6년 졸업자가 78.7%로 대다수였고, 인민학교 졸업(11.2%), 대학교 졸업(5.6%), 고등중학교 1~3년 졸업(4.5%)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한국 입국년도를 통해 역산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은 49명(55.1%)이 3년 반 이상, 19명(21.3%)이 1년 반~2년 반 미만, 13명(14.6%)이 2년 반~3년 반 미만, 8명(9.0%)이 1년 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B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89명이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에 의해 선정된 여성 180명 중에서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으며, 막내가 만 20세 미만의 연령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특성과 가구의 특성, 그리고 자녀에 관한 특성을 살펴본 바는 <Table 1>과

가구의 특성 중 어머니와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는 3인인 경우 33.7%, 2인인 경우 29.2%, 4인과 5인인 경우가 각각 20.2%, 16.9%로 나타나 어머니가 1명의 자녀와 생활하는 한부모가정이 약 30%임을 알 수 있었다. 주 수입원은 종교 단체지원금(56.2%), 회사월급/일당(38.2%), 생계지원금(4.5%), 안보강연비(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에 관한 특성에 의하면,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55.1%로 가장 많았고, 2명(31.5%), 3명(13.5%)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의 연령은 1세~5세 42.7%, 12세~19세 38.2%, 6세~11세 19.1%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others, Households, and Children

(N=89)

	Mothers	Freq.(%)		Households	Freq.(%)		Children	Freq.(%)
age	20s	2 (2.2)	family size	2 persons	26 (29.2)	number of children	1	49 (55.1)
	30s	37 (41.6)		3 persons	30 (33.7)		2	28 (31.5)
	40s	41 (46.1)		4 persons	18 (20.2)		3	12 (13.5)
	50s	9 (10.1)		5 persons	15 (16.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 (11.2)	main income source	monthly / daily income	34 (38.2)	age	1~5 years	38 (42.7)
	junior high school	4 (4.5)		security lecture fee	1 (1.1)		6~11 years	17 (19.1)
	senior high school	70 (78.7)		support fund*	50 (56.2)		12~19 years	34 (38.2)
	university	5 (5.6)		living support fund	4 (4.5)			
length of residence in South Korea	under 6months	4 (4.5)						
	6 months ~ under 1.5 years	4 (4.5)						
	1.5 years ~ under 2.5 years	19 (21.3)						
	2.5 years ~ under 3.5 years	13 (14.6)						
	3.5 years or more	49 (55.1)						

* support fund from religious organization

2. 연구도구

1) 부모신념

부모신념의 측정을 위해 Kim(2006)의 부모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Sheinberg(2003)가 미국 내에 거주하는 라틴계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신념을 측정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고자하는 가치와 특성, 그들의 과거 역사, 이민 경험과 미국 사회에 대한 수용 수준 파악을 목적으로 개발한 도구를 번역·타당화한 것이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은 3개였다. '아동중심' 하위차원은 아동중심 관점에서 나온 양육신념으로, 자녀에게 초점 맞추어 자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녀에게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족과 자녀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려 하는 신념이다. '부모중심' 하위차원은 부모중심 관점에서 나온 양육신념으로, 부모는 자녀가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위계적인 가족체계를 선호하며, 자녀에게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모델 역할을 해야 하며 좋은 환경기반을 제공해야 자녀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으며,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전달' 하위차원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역할기대나 모델을 변화시키고 현재 거주 국가의 문화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수용하고 양육에 적용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신뢰도를 현저히 낮추는 문화전달 신념의 1개 문항을 제외한 아동중심 신념과 부모중심 신념 각 6개 문항, 문화전달 신념 5개 문항 등 17개 문항의 척도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세 차원의 신뢰도는 .60 ~ .72 수준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에 따라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하위차원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차원 신념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Kim(2004)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로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온정·수용은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합리적 지도,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부모행동을 포함하였다. 거부·제재는 자녀에 대한 불안,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침해적 개입 등의 부모행동을, 허용·방임은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익애, 굴복형, 허용, 무책임·무관심형 방임 등의 부모행동을 포함하였다. 하위차원별 10개 문항의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대

상은 어머니였으므로 문항 내용을 어머니 자신이 지각한 양육행동 일치도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세 하위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61~.85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는 자신과 문항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다르다'(1점) ~ '아주 비슷하다'(4점)의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하위차원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차원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조사는 2011년 7월 북한이탈 여성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조사에 앞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2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보조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사의 목적과 내용 및 척도들의 실시 방법을 설명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이후 이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7~10명씩 총 180명과 접촉하여 연구도구들에 응답하도록 요청한 후 회수하였으므로 회수율은 100%였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연구문제 1> 즉 부모신념의 유형 분석을 위해 먼저 부모신념의 하위차원별로 산출된 문항 평균점수를 Z점수로 환산하고, K-평균 방식으로 군집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은 다양한 변인들을 조합했을 때 동질적인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는 분석방법으로, 변인들의 수준에 따라 존재하는 집단들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Borgen & Barnett, 1987). 군집의 수(K)는 다양한 K 값을 차례로 넣어가면서 변량분석의 제공함이 최소화되고 군집간의 차이가 가장 분명한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Susman et al., 2001)에 의해 3개로 결정되었다. 또한 군집분석 결과의 교차타당성 검토를 위해 자료를 무작위로 이등분한 다음 반분표본을 대상으로 군집의 수를 3으로 지정하여 군집분석하고 두 결과의 유사성을 검토(Sung, 2006) 하였다. 나아가 군집의 유형별 부모신념의 특성을 알기위해, 부모신념 하위차원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군집에 따른 부모신념 하위차원 점수를 다변량분석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채택하였다.

<연구문제 2> 즉 부모신념의 유형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의 하위차원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3> 즉 부모신념의 유형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남한 거주기간 그리고 자녀의 연령 각각의 변인과 부모신념 유형 변인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별 분석 결과의 제시에 앞서 주요 연구변인인 부모신념과 양육행동의 하위차원별 문항 평균점수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2>에서 부모신념의 문항 평균점수의 평균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부모중심 2.97, 아동중심 2.95, 문화전달 2.39 하위차원의 순이었고, 4점 척도의 중앙값 2.5를 기준으로 할 때 부모중심과 아동중심의 신념 수준은 그 보다 높지만 문화전달 신념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차원별 문항 평균점수는 온정·수용 3.07, 거부·제재 2.46, 허용·방임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척도 역시 4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온정·수용은 척도의 중앙값 2.5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두개의 하위차원 양

육행동 수준은 낮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 분류 결과, 군집1은 아동중심과 부모중심 두 하위차원의 점수가 군집 2에 비해 높고 문화전달 하위차원의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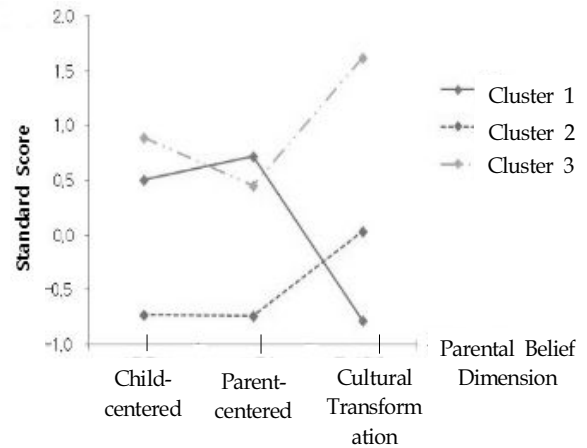


Figure 1. The Score of Parental Belief Dimensions for Each Parental Belief typ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ental Belief Style and Child-rearing Behaviors

(N=89)

Parental belief style			Child-rearing behaviors					
			Warmth · acceptance		Rejection · restriction		Permission · neglect	
			M	SD	M	SD	M	SD
Child-centered	M	2.95	3.38	.47	2.18	.56	2.25	.57
	SD	.62						
Parent-centered	M	2.97	2.82	.59	2.46	.40	2.40	.38
	SD	.52						
Cultural transformation	M	2.39	3.11	.51	3.07	.56	2.47	.64
	SD	.60						
Total			3.07	.58	2.46	.57	2.35	.51

Table 3. Cluster Analysis of the Parental Belief Z-score and Comparison of the Mean According to the Cluster¹⁾

Dimension	Cluster1(n=33)		Cluster2(n=41)		Cluster3(n=15)		F
	M	SD	M	SD	M	SD	
Child-centered	.50 ^b	.80	-.73 ^a	.76	.89 ^c	.41	39.27***
Parent-centered	.72 ^c	.69	-.74 ^a	.65	.45 ^b	.97	40.67***
Cultural transformation	-.78 ^a	.47	.03 ^b	.66	1.62 ^c	.54	89.03***

***p < .001

Scheffé's test: a<b<c.

1) F of Pillai's Trace, the statistics of MANOVA= 65.31(p < .01).

으로서 '고아동부모중심·저문화전달'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해당 사례수는 33명으로 37.08%를 차지하였다. 군집2는 아동중심과 부모중심의 두 하위차원점수가 군집1과 군집3에 비해 낮고 문화전달 하위차원의 점수가 군집1보다는 높지만 군집3보다 낮은 중간 수준을 보인 집단으로서 '저아동부모중심·중문화전달'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전체의 46.03%인 41명이 해당되었다. 군집3은 아동중심과 부모중심의 두 하위차원의 점수가 군집2에 비해 높고 문화전달 하위차원의 점수가 다른 두 군집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집단으로, 16.85%를 차지하였다. 이에 군집3은 '고아동부모중심·고문화전달'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이 어떠한지를 알기위해 부모신념의 하위차원별 문항 평균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연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상과 같은 분류 결과에 대한 교차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무선적 반분표본을 대상으로 군집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적 반분표본에 의한 군집유형별 특성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군집유형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부모중심 하위차원에서의 군집 간 차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군집2와 군집3의 차이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무선 반분 과정에서의 사례수 차이를 고려할 때 전체 표본의 군집 분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부모신념 유형에 따른 양육행동 하위차원 점수의 차이를

알기 위해,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출된 양육행동의 하위차원별 문항 평균점수의 기술통계치로써 양육행동 하위차원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온정·수용과 거부·제재간, 온정·수용과 허용·방임간의 상관관계수가 각각 -.38 ($p<.001$), .21($p<.05$)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듯이, 부모신념 유형 즉 군집에 따라 허용·방임을 제외한 온정·수용과 거부·제재의 양육행동 하위차원 점수 각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99, p<.001$; $F=16.72, p<.001$). 사후검증 결과, 온정·수용 하위차원의 점수는 군집1과 군집2간에, 거부·제재 하위차원은 군집1 및 군집2와 군집3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군집1은 군집2보다 온정·수용 양육행동 점수가 높고, 군집3은 군집1과 군집2보다 거부·제재 양육행동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의 부모신념유형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남한 거주기간 각각에 따른 군집간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92, p<.05$; $\chi^2=3.34, p<.001$; $\chi^2=6.82, p<.05$). 추가 χ^2 분석을 한 결과, 연령 변인의 경우 군집2의 40대~50대의 빈도가 20대~30대의 빈도보다($\chi^2=5.49, p<.05$), 학력 변인의 경우는 군집1과 군집

Table 4. Cluster Analysis of the Parental Belief Z-score and Comparison of the Mean According to Cluster with Randomized Split-half Sample¹⁾ (N=41)

Dimension	Cluster1(n=15)		Cluster2(n=19)		Cluster3(n=7)		F
	M	SD	M	SD	M	SD	
Child-centered	.68 ^b	.65	-.83 ^a	.70	.78 ^c	.42	29.21***
Parent-centered	.66 ^b	.91	-.60 ^a	.82	.20	.67	9.78***
Cultural transformation	-.87 ^a	.36	.11 ^b	.63	1.55 ^c	.66	46.34***

*** $p < .001$

Scheffé's test: a<b<c.

1) F of Pillai's Trace, the statistics of MANOVA= .29($p < .01$).

Table 5. MANOVA on Child-rear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Parental Belief Style¹⁾ (N=89)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Scheffé's test
Warmth · acceptance	5.70	2	2.85	9.99***	cluster2<cluster1
Rejection · restriction	8.14	2	4.07	16.72***	cluster1, cluster2< cluster3
Permission · neglect	.59	2	.29	1.15	

*** $p < .001$

1) F of Pillai's Trace, the statistics of MANOVA= 10.05($p < .01$).

Table 6. Cross Tabulation between the Parental Belief Style and the Mother's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and the Child's Age (N=89)

Variables	Category	Parental belief style			Total	χ^2
		cluster1	cluster2	cluster3		
age	20s & 30s	16(48.5)	13(31.7)	10(66.7)	39(43.1)	5.92*
	40s & 50s	17(51.5)	28(68.3)	5(33.3)	50(56.2)	
Mother's socio-demographical variable	elementary school & junior high school	4(12.1)	3(7.3)	7(46.7)	14(15.7)	13.34***
	senior school & university	29(87.9)	38(92.7)	8(53.3)	75(84.3)	
length of residence in South Korea	under 3.6 years	15(45.5)	14(34.1)	11(73.3)	40(44.9)	6.82*
	3.6 years or more	18(54.5)	27(65.9)	4(26.7)	49(55.1)	
Child's age	1~5 years	18(54.5)	12(29.3)	8(53.3)	38(42.7)	5.61 ⁺
	6~19 years	15(45.5)	29(70.7)	7(46.7)	51(57.3)	

⁺ p = .06, *p < .05, ***p < .001

2에서 '고졸 및 대졸'의 빈도가 '중졸이하'의 빈도보다($\chi^2=18.94, p<.001; \chi^2=29.88, p<.001$), 남한 거주기간 변인의 경우 군집2에서 3.6년 이상의 빈도가 3.6년 미만의 빈도보다($\chi^2=4.12, p<.05$)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부모신념 유형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6%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61$). 추가 χ^2 분석을 한 결과 군집2 즉 '저아동부모중심 · 중문화전달' 부모신념 유형에서 1세~5세 아동보다는 6세~19세 아동을 둔 어머니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7.05,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을 분석하고, 부모신념의 유형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그리고 부모신념 유형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문제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을 군집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수의 37.08%를 차지하는 군집1은 아동중심과 부모중심의 두 하위차원 점수가 군집2보다 높지만 문화전달 하위차원의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서 '고아동부모중심 · 저문화전달'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2는 전체 사례수의 46.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아동중심과 부모중심의 두 하위차원 점수가 군집1과 군집3에 비해 낮고 문화전달 하

위차원의 점수가 군집1보다는 높지만 군집3보다는 중간수준을 보이는 '저아동부모중심 · 중문화전달'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3은 전체 사례수의 16.85%를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아동중심과 부모중심의 두 하위차원 점수가 군집2보다 높고 문화전달 하위차원의 점수가 군집1과 군집2에 비해 가장 높은 '고아동부모중심 · 고문화전달'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부모신념의 세 가지 하위차원의 특성으로써 각 신념유형을 이해하고자 할 때 주목되는 점은 아동중심과 부모중심의 두 하위차원은 상반되는 부모신념 하위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높거나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부모신념 특성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치 특성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Jung and Song(2006)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성인, 대학생과 비교할 때 전통적 가치 점수가 가장 높고, 서구적 가치 점수는 성인보다는 낮지만 대학생과 차이가 없는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가장 이중적인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k(2001)은 북한이탈주민이 집단주의 측면에서는 남한주민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개인주의 측면에서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개인주의적 가치와 함께 서열의식 · 복종적 위계구조에 근간을 둔 수직적 성향을 높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구조 이중성과 유사한 결과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발견된 바 있었다. Kim and Park(1997)은 가족중심적 집단주의와 예외법절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어머니는 애정적 · 수용적 역할 측면과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역할

측면 모두의 수행에 가치를 둔다고 하였다. Kim(1995)은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의 조사 결과 한국의 어머니들이 독립심과 순종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Baumrind(1971)의 부모역할 수행 분류에 따르면 모순되는 양육신념을 갖는다고 보고했다. 2005년 발표된 Song and Ok(2005)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학습에 대한 신념으로서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수동적 학습신념과 능동적 학습신념을 동시에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나타났고, 교사 대상의 교육관 연구에서도 이러한 모순된 신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 부모의 경우 모순된 신념을 갖는 것이 급속한 서구화에 따라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었는데(Kim, 1995; Kim & Park, 1997) 북한이탈주민의 이중적 가치구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즉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가 공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이는 아시아권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발견되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었다(Dok, 2001; Jung & Song, 2006).

부모신념의 세 가지 유형은 아동중심과 부모중심 두 하위차원의 수준이 높으면서도 문화전달 하위차원에서는 극단의 차이를 보이는 군집1과 군집3, 아동중심과 부모중심 두 하위차원의 수준은 낮지만 문화전달 하위차원이 중간 수준으로 높은 군집2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부모가 아동기에 겪은 부모로부터의 양육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나 신념을 결정짓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므로 자녀 양육방식은 세대 간 전이 또는 연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Belsky & Vondra, 1993; Seo & Moon, 2008). 북한사회의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규범적으로 가부장적·수직적 가족 관계라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때(Ahn, 2002; Lee et al., 1997)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은 부모중심 신념의 수준은 높지만 아동중심 신념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모중심 신념 수준과 함께 높은 아동중심 신념 수준을 보이는 부모신념 유형, 그리고 낮은 아동중심 신념 수준과 함께 낮은 부모중심 신념 수준을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가능할까? 군집1과 군집3에서 높은 부모중심의 신념 수준과 함께 아동중심의 부모신념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주민의 사회의식과 생활태도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Chae & Yhi, 2004; Dok, 2001),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거주민보다 탈북의 동기 면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낮은 것이라는 점(Dok, 2001) 등에 비추어 출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가정혁명화' 정책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을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 또는 부모와 불평등한 관계를 갖는 존재로 보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Kim, 2001)으로써 그러한 부모와 자녀관계에

서 양육된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이 아동중심적 부모신념을 높게 갖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군집2는 군집1과 군집3에 속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식과 생활태도의 변화를 겪은 가운데도 낮은 아동중심 수준과 함께 낮은 부모중심 신념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가족정책과 본 연구대상의 연령분포와의 관계로써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의 56.2%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양육을 받아야 했던 시기는 대략 1980년대 이전의 시기로 추측되었다. 그 시기는 북한사회에서 가족의 기초적인 사회화 기능이 국가로 이전됨으로써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낮아졌고 오히려 부모 자녀간의 동질성을 명분으로 전통적 가족질서가 왜곡된 시기였다(Kim, 2001). 따라서 북한사회의 전통적인 유교적·가부장적 가족관계(Ahn, 2002; Lee et al., 1997)에 따른 부모중심적 부모신념이 잔존하면서도 사회제도적, 의식과 태도 측면에서의 변화에 의해 부모중심 신념이 아동중심 신념과 같은 수준으로 낮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높은 아동중심 또는 낮은 부모중심 부모신념의 수준이 각각 높은 부모중심 또는 낮은 아동중심 수준과 짝지어 이중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의 가능성 즉 아동중심이나 부모중심 신념의 어느 한 수준은 높지만 어느 한 수준은 낮은 상호 대조적인 수준을 보이는 양상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제3의 부모신념 하위차원인 문화전달 신념 수준은 군집3, 군집2, 군집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군집3과 군집1은 아동중심과 부모중심의 신념 수준에 차이는 없지만 문화전달 수준은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군집1과 같이 문화전달 신념의 수준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이중적 정체성(Jung & Song, 2006)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를 북한거주민보다 더 부정적 인식하여 탈북하였으므로 자신을 북한사람과 동일시할 때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남한사람과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남한사회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낮은 문화전달 신념의 수준은 자녀의 양육에서 남한사회의 새로운 요구나 기대를 받아들이는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결과된 것이며, 이는 다시 소극적인 문화 수용태도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한문화에의 동화보다는 분리 전략 즉 북한문화를 유지하고 남한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Chae & Yhi, 2004)는 점에서 해석 가능한 결과였다.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로는 캐나다로 이주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잠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 아동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문화전달 신념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Kim(2006)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군집3과 군집2와 같이 문화전달 신념 수준이 군집 내 아동중심과 부모중심 신념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 경우는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Jung & Song, 2006)을 바탕으로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Jung, Choi, & Kim, 2003)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즉 남한이라는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남한문화를 지향해야 좀 더 적응적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남한에 정착한 이후 과거에 거주했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환경에서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기대하며(Ahn, 2002) 자신도 남한사회에의 재사회화 과정을 겪는다(Kim, 2011)는 연구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모신념의 유형화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면 군집2 즉 저아동부모중심·중문화전달 집단은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전통을 바탕으로 가족기능이 국가로 이전됨으로써 자신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낮게 인식되어 있어, 북한사회와 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지만 남한사회와 문화의 수용·동조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은 중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었다. 군집1 즉 고아동부모중심·저문화전달 집단과 군집3 즉 고아동부모중심·고문화전달 집단은 북한문화에서의 개인주의적 특성 강화, 가정의 혁명화 정책으로 인한 부모와 평등한 존재로서의 자녀 인식 등이 가족에서의 전통적인 부모권위 존경 사상과 통합된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남한문화의 수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군집2보다 유의하게 높거나 낮은 어머니 집단이었다.

한편 부모신념의 유형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과 거부·제재의 양육행동 하위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교육관·가치와 같은 인지적 요소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Goodnow(198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군집1이 군집2보다 높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보인 것은 아동중심적 양육관이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갖고 존중하는 양육행동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는 Choi(2011), Oh and Jung(2006), Jung(2008)의 보고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부모중심 신념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 근원으로서의 아동중심 신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군집3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수준도 군집2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었다. 군집2의 경우 부모중심 신념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아동중심 신념 수준 역시 낮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군집1과 달리 군집3은 거부·제재의 양육행동을 가장 높게 보이며 문화전달 신념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이는 첫째,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해석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만약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아동의 유익을 위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Grusec et al., 1997; Trommsdorff, 2006)으로 해석 가능하다면 부모중심 신념 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군집1과 군집3에서 공통적으로 거부·제재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집1은 군집3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거부·제재의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북한주민에서의 개인주의 성향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가족중심주의적 집단주의(Kim & Park, 1997)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둘째, 문화전달 신념의 수준 차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었다. 즉 아동중심 신념이나 부모중심 신념과 달리 문화전달 신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군집1과 군집3이 거부·제재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문화전달 신념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Kim(2006), Sheinberg(2003)의 연구결과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약한 정도로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Miller(1988)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전달 신념이 온정·수용의 양육행동 차원과는 독립적으로 거부·제재 양육행동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전달 신념은 남한에서의 성공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어머니의 문화전달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즉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로서 자녀의 남한사회에 적응된 사회화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어머니가 사회화를 강조할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Kim, Ok, and Chun(2002)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결과였다. 아울러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적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성취 압력을 크게 줄 것으로 가정할 때(Oh & Jung, 2006), 관련하여 자녀의 교육적 성취기대가 높을수록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덜하며(Ahn & Park, 2002), 어머니가 지시적 교수법 신념을 가질수록 학교 외 교육에의 관여도가 높다(Choi, 2011)는 연구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군집2에 비해 아동중심 신념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신념 유형간 문화전달 신념의 차이에 따라 거부 및 제재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허용·방임 양육행동 차원은 부모신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군집3, 군집2, 군집1의 순으로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 조기 유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문화전달 신념이 높을수록 덜 억제적이며, 통제와 허용·방임적 양육태도를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Kim(2006)의 연구결과, 그리고 어머니가 성숙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지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과보호, 지시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Oh and Jung(2006)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남한사회에서 자녀의 학업을 강조하는 성향이 부모들이 갖는 주요 사고양식의 하나이고 이에 부모들은 자녀를 과보호하면서 또한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Choi(2001)의 지적 역시 군집3의 어머니들이 보인 높은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양육행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 유형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연령 변인에 따라서 군집2의 경우 20대~30대보다는 40대~50대의 연령자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신념의 차이가 없다는 Jung(2008) 등의 결과와는 일관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군집2 유형이 아동중심 신념을 낮게 보인 것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중심적이고 자율적인 아동중심의 교육관을 갖는다는 연구결과(Kim, 1991; Park, 1996)에 근거하여, 그리고 문화전달 신념 수준이 중간 수준으로 보인 것은 고연령층일수록 주류 사회에 대한 문화적응 지향성이 강하다는 연구결과(Cortes, Rogler, & Malgady, 1994)에 근거해 볼 때 군집2에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였다. 어머니의 학력 변인에 따른 차이의 경우 군집2와 군집1의 어머니 학력이 중졸 이하보다는 고졸 및 대졸로 높은 경우가 많았다. 군집2와 군집1은 세 가지의 부모신념 하위차원 모두에서 대조를 보이는 유형이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중심적 자녀교육관을 가지며(Jung, 2008; Kim, 2000; McGillicuddy-DeLisi, 1980) 낮은 문화전달 신념 수준을 보인다(Kim, 2006)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군집1의 경우에 고학력자가 많다는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군집2의 경우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이주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기존 문화의 유지나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도는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군입대 제도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은 연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Chae, 2003)에 근거하여 높은 연령대의 어머니가 많은 군집1에서 고학력자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3.6년 이상인 경우는 군집2에서 많이 나타났고 군집3은 .07 수준에서 3.6년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남한의 입국 초기에는 이질문화에 따른 충격과 함께 의욕이 높고(Chae & Yhi, 2004; Kim, 2011), 4년경부터 남한생활에 익숙해지지만 그에 따른 한계를 또한 느끼기도 한다(Chae, 2003; Kim, 2011)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신념 유형간의 차이는 6%의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있게 발견되어 군집2에서 1세~

5세 아동보다는 6세~19세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신념은 변하지 않거나 신념과 연령은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들(Kim, 1994; Oh & Jung, 2006)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유아기일 때 어머니들은 양육환경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McGillicuddy-DeLisi, 1980), 연령이 어릴수록 발달에 적합한 신념을 높게 보인다(Seo & Moon, 2008)는 보고에 근거할 때 군집2에서 초등학교 이전보다는 이후 시기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아동중심 신념 수준이 낮다는 군집 특성과 조화되는 결과였다. 연령대가 높은 자녀가 많은 만큼 군집2의 어머니들의 연령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를 지지해주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이탈 시점에서부터 심리적 문화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북한 이탈에서 입국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신념의 변화에 대한 접근·논의가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신념 유형 파악을 위한 본 연구의 대상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을 직접 다룬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남한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 해석·논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부모역할수행의 기저가 되는 부모신념을 처음으로 탐색하여 유형화하고 그 특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의 탐색이 남북한 문화이질성을 근거로 할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화의 이질성 못지않게 문화의 동질성 주장이 공존하는 만큼(Chae & Yhi, 2004; Dok, 2001) 남한 어머니들을 포함한 부모신념의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신념의 연구는 부모역할수행을 통한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발견 또는 아동의 적응된 발달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심이 귀결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이 함께 북한을 이탈한 자녀, 그리고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교육 부재에 따른 부모 역할 교육이 시급하다고 볼 때(Kim, 2011) 어머니의 부모신념과 아동 발달을 중재하는 중재 변인으로서의 문화적응도(Chae, 2003)의 역할을 확인하는 기초연구는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한과 북한의 문화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부모신념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부모신념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Ahn, J. Y., & Park, S. Y.(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53-68.
- Ahn, Y. J.(2002). *A qualitative study on family culture of North Korean defe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 1-103.
-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227-2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orgen, F. H., & Barnett, D. C.(1987). Applying cluste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56-468.
- Bornstein, M. H., & Cheah, C. S. L.(2006). The place of culture and parenting in the ecological contextual perspective on developmental science. In K. H. Rubin & O. B. Chung(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3-33). N.Y.: Psychology Press.
- Chae, J. M.(2003). *The mechanisms and pattern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Chae, J. M., & Yhi, J. H.(2004). North Korea-South Korea cultural heterogeneity in psych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North Korea defectors'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2), 79-101.
- Chao, R.(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hin, M. J., & Yi, S. H.(2007). The family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socio-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5), 63-74.
- Cho, B. H., Shin, N. L., Ahn, J. J., Lee, J. L., Choi, Y. K., Song, S. Y., Kim, J. Y., & Kim, Y. W.(2009). 2009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Choi, K. S.(2011).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 of fathers' and mothers' educational belief to overprotective/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and academic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Chun, H. Y.(1998). Is authoritative parenting the best for children's social adjustment?: Reconsideration based on western and Asian cultures,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8), 21-37.
- Chun, H. Y.(2003). Relations among social withdrawal conduct's objects and subtypes, mother's childrearing beliefs in 4-year-old children: Comparing Korean with American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2003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Korea.
- Cortes, D. E., Rogler, L. H., & Malgady, R. C.(1994). Biculturality among Puerto Rican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5), 707-721.
- Dok, K. S.(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lue orien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5(1), 149-174.
- Entwisle, D. R., & Hayduk, L. A.(1981). Academic expectation and the school attainment of young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4, 34-50.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usec, J. E., Rudy, D., & Martini, T.(1997). Parenting cognitions and child outcomes: An overview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In J. E. Grusec & L. Kuczynski(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259-282). N.Y.: Wiley.
- Han, Y. M., Hokoda, A., & Song, H.(2009). A study on the educational belief of Korean-American mothers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7, 271-288.
- Harkness, S., & Super, C. M.(2006). Themes and variations: Parental ethnotheories in western cultures. In K. H. Rubin & O. B. Chung(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61-79). N.Y.:

- Psychology Press.
- Hasting, P. D., & Rubin, K. H.(1999). Predicting mothers' beliefs about preschool-aged children's social behavior: Evidence for maternal attitudes moderating child effects. *Child Development*, 70(3), 722-741.
- Hong, J. E.(2003).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ent's changes and problems in child-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 Hwang, M. S.(2006). *A study on the parental beliefs about letter education and writing activity for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Jeon, Y. S.(1992). *The effects of mother's belief and child's sex on child's cognitive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Johnson, J. E., & Martin, C.(1983). Family environments and kindergarten children's academic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ortheaster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llenville, N.Y..
- Jung, M. S.(2008). *The realities of early private education subsequent to mother's view on education of their child: Centering on a mother having a child of full five years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 Jung, T. Y., & Song, K. J.(2006). Duality in value structure and behavioral judgment system: Comparisons between undergraduates, adul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3), 49-68.
- Jung, T. Y., Choi, Y. J., & Kim, Y. M.(2003).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of North Korea evaluations by its defects: Comparisons with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3), 29-47.
- Kim, A. M.(2000).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beliefs about knowledge Acquisition, mothers' teaching strategies and preschoolers' problem-solving 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Kim, H. J.(1995). Maternal beliefs about child-rearing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2), 5-22.
- Kim, H. T.(2008). Family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adaptation of adolescents moved from North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1), 49-73.
- Kim, J. S.(2011). *Family life of christian NKD in South Korea: Focus on marital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 Kim, J. S., & Park, S. Y.(1997). Maternal traditional-modern values, childrear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1), 125-142.
- Kim, K. H.(1994). *Parental beliefs about intelligence, child-rearing, educational go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M. H.(2006). *Maternal parental belief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sense of social competenc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s residing in Korea and those residing in Canada*.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M. H., & Ok, K. H., & Chun, H. Y.(2003). The effects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the preschoolers' aggressive and social withdraw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4), 85-100.
- Kim, M. J. & Chung, K. S.(2007). Parenting of Young Children by North Korean Parents in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1), 71-94.
- Kim, M. J.(2004).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im, S. C.(2006). Effects of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environment in North Korea on their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Korean Unification Studies*, 11(1), 35-56.
- Kim, S. D.(1991). *The Relations between educational belief and child rearing attitude of young children's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Lee, J. H.(2000). *The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unific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J. L.(2005). Parents' cultural beliefs about children's success in school.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 Association*, 14(5), 721-736.
- Lee, K. C., Lee, G. Y., Rhee, E. Y., Yi, S. H., Kim, D. N., Park, Y. S., & Choi, Y. S.(2001). *North Korean living cultu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K. C., Rhee, E. Y., Yi, S. H., Park, Y. S., Kim, D. N., & Choi, Y. S.(1997).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 (I).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6), 289-315.
- Lee, W. Y.(198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McGillicuddy-DeLisi, A.(1980). The role of parental beliefs in the family as a system of mutual influence. *Family Relations*, 29, 317-323.
- McGillicuddy-DeLisi, A.(1992).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personal-social development. In I. Sigel, A. McGillicuddy-DeLisi, &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115-14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ills, R.,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Ministry of unification (2011). Data: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ed the South Korea. <http://www.unikorea.go.kr>.
- Oh, J. H., & Jung, T. Y.(2006). Variation in mother's parenting style dependent on their children's school ag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 43-54.
- Okagaki, L., & Sternberg, R. J.(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 Park, J. R.(2009). Female Saeteomins' Childcare and Work: The Current State and Support Measures. *Korean Cultural Studies*, 28, 97-135.
- Park, S. Y.(1996). *Mother's traditional - modern values, child rear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Rohner, R. P., & Pettengill, S.(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eo, K. N., & Moon, H. J.(2008). Mothers' beliefs i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Relationships with mother's childhood experienc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23-40.
- Sheinberg, N.(2003). *How should I raise my chil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Shin, H.(1996). *Korean-American mothers' self-reported parent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Song, J. I.(2002). *Comparative study on family lif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Song, M. S., & Ok, S. W.(2005). Development of a maternal beliefs scale on preschool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4(1), 1-13.
- Sung, W. H.(2006). *Applied analysis of multiple variance*. Seoul: Tamjin.
- Susman, E. J., Schmelk, K. H., Ponirakis, A., & Garipey, J. L.(2001). Maternal prenatal, postpartum, and concurrent stressors and temperament in 3-years-olds: A person and variable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629-652.
- Triandis, H.(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ommsdorff, G.(2006).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lifespa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K. H. Rubin & O. B. Chung(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143-183). N.Y.: Psychology Press.

접수 일 : 2012년 03월 08일

심사 일 : 2012년 04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17일

